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018년9월13일 | 책임조사역(G3) 김희원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인구 10백만 명 (2018기준) 	정치체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GDP 4,117억 달러 	1인당GDP 39,479달러 	통화단위 UAE Dirham (Dh) 	환율(\$기준) 3.67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 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으로 구성된 연합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978억 배럴의 원유(세계 8위)와 5.9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7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또한, 두바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석유부문의 GDP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며, 정부는 건설, 유통, 관광, 물류,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아랍의 봄")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정정불안을 겪고 있으나, UAE는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 (아부다비의 군주)의 통치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6. 18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 (2002), 이중과세방지협정 (2003),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 (2006), 군사협력협정 (2006), 문화협력협정 (2007), 원자력협력협정 (2009), 항공업무협정(2010), 세관협력협정 (20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6,076,775	5,869,962	5,388,883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수 입	8,614,672	6,941,053	9,557,058	원유, 석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447건, 1,539,550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3.3	3.8	3.0	0.5	2.0
소비자물가상승률	2.4	4.1	1.6	2.0	4.2
재정수지/GDP	1.9	-3.4	-2.5	-1.8	-1.4

자료: IMF, EU

2018년 국제유가 회복 및 OPEC 증산 합의 등으로 경기회복 전망

-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는 산업다각화 정책에 힘입어 석유 부문의 GDP 비중이 2006년 37.5%에서 2016년 31.1%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석유 부문이 경제와 산업을 주도하여 국제유가 변동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2017년에는 미국 셰일업체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한 저유가 추세의 영향과 OPEC의 감산 합의(일 120만 배럴 감산) 및 연장 합의(감산 기한 2017년 6월 → 2018년 3월 → 2018년 12월)에 따른 원유 생산량 제한 등의 영향으로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8년에는 원유공급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및 OPEC 증산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비석유 부문 또한 엑스포 2020 관련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OPEC은 174차 정기총회('18.6.22)에서 그 동안의 감산정책과 세계수요 호조 등으로 지난 6개월간 수급 여건 개선세가 지속되었다고 평가하고, 시장수급 안정 등을 위해 2016년 11월 일일 120만 배럴 감산 결정 이후 1년 7개월만에 증산을 결정

< UAE의 실질성장률 추이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e	2018년 ^f
실질성장률	3.3%	3.8%	3.0%	0.5%	2.0%
- 석유 부문	0.4%	5.4%	3.8%	-2.5%	0.0%
- 비석유 부문	4.6%	3.2%	2.7%	1.9%	2.8%

자료: 2018년 5월 IMF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국제유가 회복 및 저유가 환경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으로 재정수지 개선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5년 -3.4%, 2016년 -2.4%로 연속 적자를 기록함.
- 재정적 압박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에너지 보조금 개혁(석유제품 가격, 전기·수도요금 인상 등)과 정부 지출 삭감을 시행한 결과 지난 2년 간 정부 지출이 14%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 -3.4%에서 2017년 -1.8%로 개선되었음.

- 최근 국제유가가 회복되면서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4%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2018년 5월 IMF가 발표한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UAE의 2018년 균형재정 달성 국제유가를 71.5달러/배럴로 추정한 바 있음.
- 한편, 저유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UAE를 포함한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 회원국들은 2015년 12월 기존의 무세(無稅) 정책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2018년 1월 부가가치세 도입을 완료하였음.

* 6개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 UAE 정부는 부가가치세 부과 시행 첫 해에 최소 U\$33억 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방 국세청은 2018년 4월 11일 '부가가치세 시행 100일 기자회견'에서 UAE 기업들이 98.8%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율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금과 다이아몬드 산업 및 MICE(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과 다이아몬드의 도매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MICE 산업 지원 차원에서 컨퍼런스 및 전시 관련 시설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도입 등으로 상승할 전망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2015년 4.1% 대비 2.5%p 하락하였으며, 주요 하락 원인은 평균 교통비 인하인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UAE 정부의 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 원유가격에 연동하였고, 저유가로 인해 UAE 국내 석유제품 가격 등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평균 교통비가 4.1% 감소함.
- 2018년 1월 부가가치세(세율 5%) 시행 및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솔린, 디젤 가격 상승으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를 기록할 전망이다.
- UAE 정부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경제부, 연방 국세청, 지방 정부 경제개발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 조세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54,448	17,555	4,875	17,627	21,849
경상수지/GDP	13.5	4.9	1.4	4.7	5.3
상 품 수 지	108,440	76,559	68,445	79,254	96,897
상 품 수 출	343,017	300,436	294,990	308,467	344,447
상 품 수 입	234,577	223,877	226,545	229,213	247,550
외 환 보 유 액	78,424	93,673	85,118	94,172	94,172
총 외 채	194,272	225,007	231,032	233,096	236,027
총외채잔액/GDP	48.2	62.9	66.3	61.8	57.3
D.S.R.	7.5	9.5	11.0	10.9	10.2

자료: IMF, EIU

국제유가 회복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 증대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2016년 UAE 총수출액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출액 감소 등에 따라 2014년 대비 9.1% 감소하였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4년 13.5%에서 2016년 1.4%로 급격하게 위축되었음.
- 2017년 국제유가 일부 회복에 따른 석유 수출액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7%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OPEC 증산 합의에 따른 석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동 비중이 5.3%로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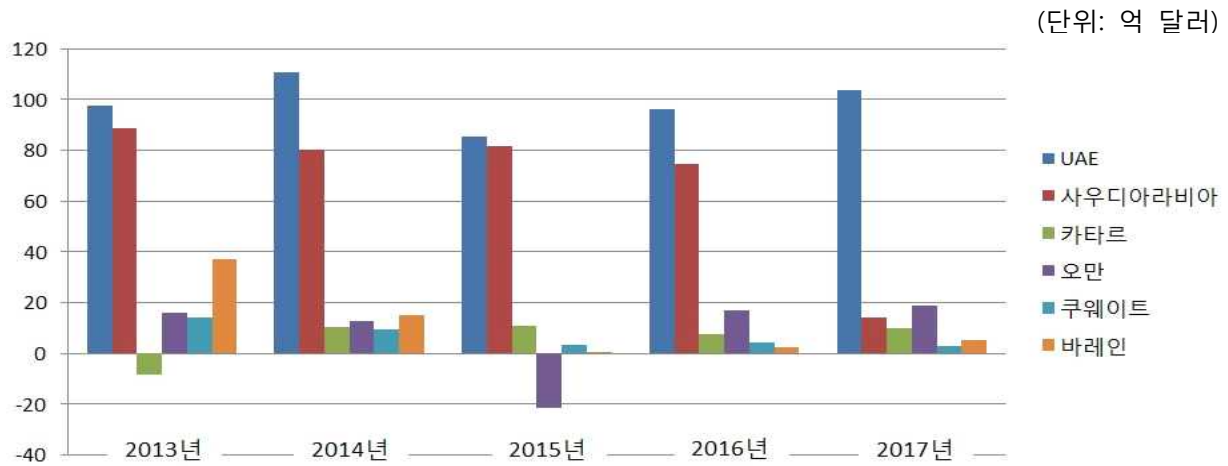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으로 상승

- 2017년 외환보유액은 2012년 이후 저유가로 인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추세 속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에 힘입어 2014년 말 784.2억 달러 대비 20.1% 증가한 94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8에 의하면, 2017년 UAE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는 2016년(96.1억 달러) 대비 7.8% 증가한 103.5억 달러로, 세계 30위(전년 대비 5계단 상승),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1위임.

< GCC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총외채잔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감소할 전망

- 각종 인프라 개발, 아부다비와 두바이 외의 토후국들의 민심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의 충당을 위한 대외차입증가에 따라 총외채잔액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국제유가가 회복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17년 61.6%, 2018년 58.9%를 기록할 전망이다.

* 총외채잔액(억 달러) : 1,942('14) → 2,250('15) → 2,310('16) → 2,330('17) → 2,360('18)

-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6년 115.9%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회복으로 2017년 104%까지 하락하였음.
- D.S.R도 2014년 말 7.5%에서 2017년 말 10.9%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말에는 10.2%까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국부펀드를 통한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및 운용 중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에 따르면, 1976년 설립된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운용자산은 2018년 6월 말 기준 약 6,830억 달러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1조 352억 달러)과 중국 투자협회(9,414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음.
- 이외에 두바이투자회사(ICD) 2,298억 달러, 무바달라 투자회사 1,250억 달러,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 1,230억 달러, 아부다비국제석유투자회사(IPIC) 663억 달러, 에미리트투자청(EIA) 340억 달러 등이 있음.
- * 2018년 3월 21일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아부다비투자위원회를 합병하는 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아부다비 투자위원회는 무바달라 그룹 소속으로 바뀔 전망이다.
- 2017년 말 기준 UAE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는 GDP의 152%로, 저유가의 충격을 흡수할 재정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연방 내 토후국들의 경제력 간에 큰 격차가 존재

- 아부다비는 UAE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의 94%를 보유하고 있어 1인당 GDP가 약 1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넉넉한 경제여건을 향유하고 있고, 두바이는 유통물류·교통·관광 및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갖춰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 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
- 이에 반해 아즈만, 움 알콰인, 라스 알 카이마, 후자이라 등 북부 토후국들은 부존자원과 산업기반이 빈약하여 저개발 상태로서, 석유가스 자원 유무, 인구 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성공 여부에 따라 토후국 간에 경제발전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여전히 편중된 경제구조

- 연방 및 각 토후국 차원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이 계속되어,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제조업, 관광, 금융, 물류 등의 비석유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UAE 정부는 산업다각화 실현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 알루미늄 및 철광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지만 점차 자동차, 기계, 식품가공 등 보다 다양한 산업으로 성장추세가 확장되고 있음.
 - 경제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석유 부문의 GDP 비중이 2006년 37.5%에서 2016년 31.1%*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연방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석유 산업이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경제 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 * 2016년 기준 GDP 구성비는 아부다비가 석유 부문 49.2% 및 비석유 부문 50.8%, 두바이는 석유 부문 1.7% 및 비석유 부문 98.3%임.

< UAE 경제 활동별 GDP 비중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석유 부문	32.1%	31.3%	30.4%	30.9%	31.1%
비석유 부문	67.9%	68.7%	69.6%	69.1%	68.9%

자료: UAE 통계청(Federal Competitiveness and Statistics Authority)

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 UAE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경제·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UAE 정부는 자국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 프로그램을 도입,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상거래 2%, 은행 4%, 보험 5%) 이상의 자국민 고용을 강제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원유 매장량 세계 8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7위의 자원 부국

- UAE는 2017년 말 기준 978억 배럴의 원유(세계 8위)와 5.9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7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특히 원유 매장량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약 8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7개 토후국 중 국토의 86%를 차지하는 아부다비가 UAE 전체 원유 매장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보유함.
- 일일 원유 생산량은 394만 배럴(2017년)로 세계 7위이며, 신규 유전의 개발 등으로 2010년부터 산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604억 m³(2017년)로 세계 15위임.
- 한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2018년 5월 하류 부문(down stream) 사업 확장에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정유능력을 2배,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3배로 늘릴 계획이며, 루와이스 정유·석유화학 단지에 확장 건설을 담당할 사업자로 스페인 Cepsa를 선정할 바 있음.

< 루와이스 정유·석유화학 단지 확장 건설 >



- 이외에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비에너지 광물자원의 개발잠재력도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정책성과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금융, 관광 등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와 경제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2008년 11월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다변화된 고부가가치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동 전략은 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방위, 제약-생명공학, 관광, 의료 등의 Global Focus Sectors, 수송-무역-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의 Regional Focus Sectors의 전략적 확충을 추구하고 있음.
- 동 전략에 의해 아부다비 경제가 2030년까지 달성코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경제성장률 6%(비석유 부문은 7%), 실질 GDP 중 비석유 부문 비중 64%, 실질 GDP 대비 비석유 무역수지 균형 달성 등임.
- 아울러 아부다비 정부는 최근 5개년 개발계획(2016~20년)을 새로이 수립하여 인프라 개발, 비석유 부문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동·북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Key Player 역할 지속

- UAE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 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한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물류 허브임.
- 특히 석유 및 가스 분야(두바이 50%, 아부다비 55%)와 외국계은행의 지점(20%)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 적용(5%)으로 낮은 수준임.
- 또한 6개월 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두바이 EXPO 2020 개최 준비 지속

- EXPO 부지에는 국가관, 광장, 호텔, 조경시설 등이 들어서며, 총 프로젝트 사업비는 22억 달러 규모로 전망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도심과 EXPO 부지를 연결하는 메트로 확장공사 및 공항 개발 프로젝트가 있음.
- 2018년 현재 두바이 메트로 터널 주요 굴착공사를 완료하여 2019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두바이 EXPO 2020 방문객의 약 20% 수송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UAE 정부는 연간 승객 3억 명 처리가 가능하도록 공항 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에 총 23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알막툼 국제공항 개발 80억 달러, 두바이 국제공항 4단계 확장 공사 76억 달러, 아부다비 국제공항 재개발 및 확장 공사 68억 달러 등이 있음.

- 두바이 정부는 EXPO 부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외에도 EXPO의 성공적인 개최 및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 중임.
- 현재 발표된 대형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Burj Khalifa의 높이를 넘어서는 Dubai Creek Harbour의 The Tower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디딤돌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지정하여 현재 UAE 전체 35개(두바이 25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중이며,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100% 회사소유권 인정, 법인세 및 관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 무제한 채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2018년 5월 UAE 정부는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Free Zone)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100% 회사소유권 인정 및 장기 비자제도* 등을 승인한 바 있음.
- *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대 10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거주비자(Residency visas)를 발급
- UAE는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여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38개 평가대상국 중 종합 17위를 기록함.
- 전년(16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지만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26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달성하였음.
- * GCC 국가들의 순위: 카타르 25위(전년 18위), 사우디아라비아 30위(전년 29위), 바레인 44위(전년 48위), 쿠웨이트 52위(전년 38위), 오만 62위(전년 66위)

정치안정

1971년 연방 창립 이래 각 토후국 간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국 유지

- 석유 수입의 토후국 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 토후국들에 대한 사회 인프라 및 복지 지원 등으로 전체 연방의 화합을 유지하고 있음.
- UAE의 정치체제는 7개 토후국이 연방 정부를 구성(1971년 출범)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이며, 토후국 별로는 왕정을 취하고 있음.
-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두바이의 군주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통치하에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UAE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나 사실상 지속적인 연임에 의한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자이드 초대 대통령 사망 이후 칼리파 대통령이 연임하고 있음.
- Khalifa 대통령(70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나, 그의 이복동생인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모하메드) 왕세제가 이미 실질적인 통치자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어 대통령의 유고시 왕위 및 대통령직 계승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왕족 일가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높은 국민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국내외의 민주주의 요구가 있으나 미약한 수준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6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UAE는 167개국 가운데 147위로 하위권 그룹에 속하여 민주주의 단계가 낮음.
-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반정부, 반이슬람 표현 의견 게재 혐의로 고발되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방되는 등 강경 대응으로 그 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 UAE 정부는 현재 무슬림형제단의 지부인 al-Islah 등 자국 내 이슬람주의 정치세력 및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발호를 적극 억제하는 한편, 2014년 들어 테러대처법 개정 및 테러자금 세탁방지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였음.

사회안정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래 중동 정세 격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정세 유지

- UAE는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의 여파를 피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됨.
- 소득수준이 높고, 집권층의 종교적 보수 색채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 (약 88%)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또한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보기관, 군대, 경찰 수뇌부가 왕실 일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당이 존재하지 않아 반정부 세력화가 어려움.

토후국 간 소득격차 확대는 잠재적 불안요소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 북부 토후국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토후국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불만 증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연방 정부는 북부 토후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과 식료품 보조금제 도입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단기간 내에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제관계

최근 카타르 단교사태로 GCC 결속 약화

- 걸프 지역의 6개(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수니파 왕정 국가들의 협력체인 GCC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및 역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1981년 5월 설립되었음.
- 2017년 6월 카타르의 무슬림형제단 비호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UAE는 카타르가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등과 함께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GCC 결속이 약화되었음.
- 한편 2017년 10월 IMF 지역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카타르와의 단교가 GCC 국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특히 카타르는 오만과 UAE로 막대한 규모의 가스 수출을 지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발표함.

이란 핵 문제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주요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추세

- UAE는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내전에 휘말린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미 국무부는 2016년 7월 IS 격퇴전의 일환으로 UAE에 7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폭탄, 유도장치 탄약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음. 현재 UAE의 al-Dhafra 공군기지에는 3,500여명의 미군 병력과 IS 공습 작전 등에 사용되는 전투기, 정찰기 등이 파견되어 있음.
 - 이란은 UAE의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시리아-예멘 사태 등 역내 분쟁에서의 이란의 개입 및 영향력 확대를 강력 견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직접 접해 있는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연합하여 친이란계 후티 반군의 예멘 내 세력 확대 견제 차원에서 예멘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등 대 이란 강경 노선을 견지중임.
- * 30여 대 전투기와 1개 여단(1800여명) 규모의 병력 파병

국익 우선의 실리외교 추진

- 막대한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대외원조 규모는 1971년 연방 창립 이래 약 699억 달러이며, 이중 아랍 및 이슬람 국가 대상 원조가 전체의 약 85% 이상을 점유하여 이슬람권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친미·친서방 노선을 유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함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
- 한편 UAE 체류 외국인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06억 750만 달러(단기 36억 2,270만 달러, 중장기 169억 8,480만 달러)로 연체잔액은 1,390만 달러이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18.01)	2등급(2017.06)
Moody's	Aa2 (2018.05)	Aa2 (2017.05)
Fitch	AA(2017.12)	AA(2017.02)

OECD,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UAE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

- OECD는 2013년 1월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UAE의 신용등급을 계속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평가일 현재 Moody's는 UAE와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을 모두 Aa2로 평가하고 있으며, Fitch는 UAE의 신용등급은 평가하지 않는 대신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는 UAE를 구성하는 6개 토후국 중 가장 많은 원유매장량과 가장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바이 등 다른 토후국들의 재정적자 보전을 담당하는 등 연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UAE)는 경제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GDP에서 석유 부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석유 부문이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와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로 2015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으나, 저유가 환경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및 국제유가 회복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각종 인프라 개발 및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7년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에 힘입어 2014년 말 대비 20.1% 증가한 94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152%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운용 중임.
- 정치적으로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거주민의 85%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2011년 아랍의 봄 이래 중동정세 격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카타르 단교 사태로 GCC 결속이 약화되고 있으며 역내 분쟁에서의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익 우선의 실리 외교를 추진하면서 주요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중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의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단계 하락한 종합 17위를 기록하였지만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고, OECD와 국제신용평가3사도 UAE(또는 아부다비)에 대한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